주제회의
장애

기후변화 시대 국제 인권법과 재난 시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의의

미할 발세르자크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부위원장]

본 발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한 현재의 규범적인 프레임워크에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HCHR 보고서(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증진 및 보호에 관한 분석적 연구)의 관점에 따라, 이 문제는 국제 재난법 및 그 의의에 대한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재난 발생과 관련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특정 위험들이,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에 있어서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명백하다. 연사는 이러한 측면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며, 특히, 2016년 UN 국제법위원회가 명시한 재난 시 인명 보호에 관한 초안 조항들을 함께 살펴본다. 인권에 대한 담론에서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항상 잘 인식 및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발표에서는 기후변화 및 국제 재난법에 관한 논의에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는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취약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즉,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 및 권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의 중요한 요점은 기후변화로 야기된 환경 및 기타 위험들로 인해 장애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된 규범적 프레임 워크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